



# 광주 우치동물원 코끼리 모셔오기 실패의 교훈

“코끼리를 들여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한 직원은 ‘코끼리를 보게해달라’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여 동안 공을 들였던 ‘코끼리 입식 프로젝트’가 무산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우치동물원은 숙원사업인 코끼리 입식을 위해 지난 2004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최근 사업비를 광주시에 반납했다. 92년 조성된 우치동물원에는 지금까지 코끼리가 없다.

당초 동물원측은 사업비를 확보하자 수입용역업체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인도 마이소르 동물원으로 부터 아시아산 코끼리 한 마리를 들여오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아시아산 코끼리가 사육·관리에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해당 동물원과 계약이 이뤄지는 등 코끼리 인도 절차가 급물살을 탔으나, 뜻

밖에 마이소르 주 정부에 있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체는 우치 동물원이 10년 전에 만든 코끼리 사육사를 문제 삼

마쳤으나, 이마저도 좌절돼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  
현재 동물원측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코끼리 반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

기 때문.  
또 동물원측이 사육사를 개축하는데 최소 2억원이 드는 데다 2마리를 들여올 경우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 코끼리 보내주려던 인도 동물원 “우리 비좁고 콘크리트 바닥 곤란 한마리는 안돼 한쌍 데려가세요” ‘동물 행복권’ 인식 계기로 삼아야

었다. 198㎡ 규모의 방사장이 좁은 데다 사육사 바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등 서식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우치동물원측은 뉴질랜드의 한 동물원과도 생후 3년에서 5년된 코끼리 1마리를 들여오기로 매매 계약을

로 보여 광주 시민들이 코끼리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한층 강화돼 코끼리 한 마리도 들여오기 힘든 상황인데다 동물 단체들이 동물 행복권을 위해 코끼리를 데려갈 경우 최소 한쌍 이상을 요구하고

코끼리 반입이 힘들어지자 동물원측은 지난 16일 코끼리를 보유한 민간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코끼리 전시 제안을 공모하고 있다. 관람객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고 코끼리 타기, 사진촬영 등 체험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동물원측은 민간 업체들에게 1년 동안 동물원내 코끼리 전시공간을 임대해주면 장소 임대료도 받고 시민들에게 코끼리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일대양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원 관계자는 “코끼리 반입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현재도 동물수입업체들과 코끼리 반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박광태 광주시장 ‘2008 글로벌 경영인 대상’

박광태 광주시장이 1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 대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 대상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탁월한 국제경영 성과로 경제발전이 이바지한 국내 기업 CEO와 기관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한국경영평가원이 후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제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광주에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활발한 투자유치와 수출 100억달러 달성 등으로 광주를 생산도시, 수출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이끌어온 점을 인정받아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다.

한국경영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자체 개발한 글로벌 경쟁력지수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과 CEO 경영활동

의 국제화 수준, 대외 수상 경력, 글로벌 파트너십 및 글로벌 비전 등 30개 항목에 걸쳐 엄정 심사했으며 박 시장은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열한 세계 경쟁 시대에 도시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이 절실한 상황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주가 첨단 산업과 문화수도, 1등광주 도약을 통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행복한 가정 꾸리려면...”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진행

#### 조선대 한국어학당

조선대 한국어학당(학당장 강희숙)은 오는 25~26일 이틀간 교내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국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제결혼 남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2007년 혼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결혼한 남성 10명 중 4명이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은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의 1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주도 6.7%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

았다.  
권미주 한국어주여성센터 상담팀장이 ‘세계화와 국제결혼’을 주제로 강연을 갖는 등 홍보연의 사소통혼련 강사의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김은경 총북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의 ‘가족갈등 예방과 평등 가족 만들기’ 등 강좌가 마련됐으며, 국제결혼 관련 법규 소개, 이주여성·남편 사례들이 포함됐다.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40명을 선착순으로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무료이며 숙식 및 교통비, 교재를 제공한다. 수강생에게는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국장부 장관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문의 062-230-6522.

/정성필기자 camus@

## “올 여름 부채로 시원하게”



광주시는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관리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등과 함께 ‘초고유가 극복 시민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중교통 이용과 안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실내 적정온도 섭씨 27도 이상 유지, 선풍기와 부채 사용 등을 적극 홍보했다.  
또 ‘올 여름 부채로 시원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부채에 손도장을 찍으며 에너지 절약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 출범

### 광주지법·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참여

광주지역 아동과 여성들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가 17일 출범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 발족식을 갖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아동·여성 폭력 예방대책 및 운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이 연대에는 광주지법과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청, 보건소, 119 구급대를 비롯 여성폭력 관련 단체, 아동·여성 폭력 예방대책 및 운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광주지역 아동과 여성들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가 1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 직후 첫 회의를 열어 아동·여성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를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간 위원장에 여성의 전화 성매매보호시설인 ‘한울지기’ 채숙희 소장을 호선했으며, 남성수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단체별로 아동·여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 온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지역 아동과 여성들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연대’가 1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 직후 첫 회의를 열어 아동·여성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무료 법률지원 노무사제’

### 해고사건 22건 지원 성과

#### 전남지방노동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무료법률지원 공인노무사 선임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까지 해고사건 22건을 지원하고, 이중 12건이 합의 또는 권리구제의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또는 차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공인노무사를 추천해주고, 이 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 방안 등 협의는 물론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전남지역의 C경비용역에 근무중이던 근로자 김씨 등 6명은 최근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원직에 복직하기도 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장기-게

무안 ↔ 장사 (장가게) 직항

매주 일, 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특별한 고품격! 가격은 다운!

GOLF 4명부터 출발가 ₩ 899,000-

www.kjair.com

www.naver.com

광주·전남-북 울릉도행사 민선, 광주MBC 문화방송 사후실 ■ 문화전환 1111-228-6070 ■ 부산 최고의 항공소유를誇る 광주 MOC경희항공 노동위원회 한국사 노무사 노무사